

아프리카 케냐 윤진수 윤미숙 선교사

2022 년 4 월

- ELGEYO-MARAKWET, KENYA, AFRICA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4-15)

케냐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Bwana Yesu asifiwe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평안 하셨는지요? 선교의 기쁨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저희 선교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었기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마라켓과 케이요와 포콧 부족들이 더이상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귀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편지 이후의 사역 소식을 감사와 기쁨의 편지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마라켓과 케이요 지역 리더 세미나 (이제 케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지난 1 월,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내 윤미숙 선교사를 남겨두고 사역지로 돌아와



동부 마라켓 지역 리더 세미나 강의 중



신학 학사 과정 강의 전 찬양시간

섬기며 지낸 지난 3 개월은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2 월 한달 간은 마라켓과 케이요 부족 지역을 다니며 총 약 800 명의 지역 교회리더들에게 성경적 교회의 사역과 기능에 대하여 교육 세미나를 통해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고 각자의 마을과 처소로 돌아가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행복한 웃음으로 인사하고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은 험난한 길을 힘차게 내딛으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었습니다. 마라켓과 케이요 부족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각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부흥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의 기쁨

기도해주시고 귀한 장학금으로 사랑을 베풀어주심에 힘입어 신학교육과 제자훈련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들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섬기는 지역교회들에서의 모습입니다. 강의실뿐만 아닌 학생들의 교회와 집을 방문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교육선교와 제자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공감하며 기도할 때 선교사나 학생들 모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 강권하심을 체험하고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더욱 알아가며 이곳 형제 자매들의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믿음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프리카

땅에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이 각 부족과 지역에 은혜로 임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종으로 헌신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제자훈련에 참석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셔서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가족 이야기

20 주간의 항암치료와 그에 이은 수술, 5 주간의 방사선 치료는 아내에게 육체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큰 인내와 수고를 요구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아내와 저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수 있게 해 주셨고 더욱 믿음이 강건해지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Cancer free!”라는 기쁜 소식도 주셨습니다. 이제 12 월까지 계획된 주사 치료와 처방전을 마치면 아내도 케냐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참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내의 회복을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치료를 받는 기간에 손수 따뜻한 음식과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서 힘을 얻도록 해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과 사랑의 손길로 아내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더욱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아낌없이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다음 편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Mungu awabariki (축복합니다)!

2022년 4월 24일

케냐 마라켓 부족 마을에서 윤진수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마라켓과 케이요, 포콧 지역 교회와 부흥을 위해
2. 신학생들이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성장하도록
3. 현지인 동역자, 자콥 목사, 리차드 집사, 베네딕트 형제의 성령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4. 선교사의 두 분 어머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5. 윤미숙 선교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6. 자녀 기쁨, 사랑, 온유의 교육과 안전, 강건함을 위해

후원안내

1.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Pay to - “SEED USA Ministry Inc.”
Memo - “윤진수 케냐 선교사”
보내실 주소: P.O. Box 847, La Mirada, CA 90637
2. Zelle 을 이용하실 때는 (각 은행 앱에서):
seedfinance@gmail.com 을 사용해 주시고,
Memo 란에 “윤진수 (Joseph Yoon) 케냐 선교사”, 영수증을 위해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